

특별취재

정읍시, 지방하천 '최우수'

2016년 전북도 종합평가에서... 도로분야 '우수기관' 선정도

정읍시, A발생 현안점검 간부회의

정읍시가 19일 A제난안전상황실(제2청사)에서 김생기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시는 지난 16일 현재까지 전북도 A발생지역 17곳 가운데 정읍지역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AI 방역단계가 최고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제2청사에 A제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적극 예방활동에 나섰다.

정읍시 재난안전상황실은 고병원성 AI 재발방지와 유입차단을 위하여 비상대책본부를 12개반 15명이 24시간 비상운영하고 있으며, 19일부터는 방역대를 확장 운영하여 거점소독시설 9개소, 발생장소 통제소 7개소에 공무원이 전방위적으로 투입되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하여 AI 방역대책 추진현안 전반을 점검하였고, 정읍시 축산농가의 AI확산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간부들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보건소, 전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근 전주 라투체에서 개최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6년 전북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부안군 보건소가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보건사업을 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로 재구성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차매, 심 뇌혈관질환,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사업 등 13개 영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맞춤형 건강증진과 환경조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개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지원 발굴 사업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건강환경 조성 등 단체 및 주민이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119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 김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문정돈)는 19일 연말연시를 맞아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119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을 비롯하여 김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수혜자 7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쌀 140포대(10kg) 기증하고 더불어 주택 내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일바이오종묘

광동종자박람회 참가 '호응'

제15회 광동종자박람회가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는 세계 40여 개국 이상에서 400여 종자기업이 참여하였고, 6천여 품종의 작물이 전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육종연구단체에 입주한 대일바이오종묘의 본사인 북경 대일국제종묘에서 고추 품종을 전시포에 출품했으며 산업관에 국내 유일하게 기업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바이어를 상대로 종자 세일 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대일바이오종묘의 광저우연구소는 Field Day를 개최하여 다양한 품종의 고추를 선보였고 상세한 제품 설명을 통해 중국,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한국 등에서 방문한 바이어들에게 좋은 호평을 들었다.

이번 광동종자박람회는 2017년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체 일원에서 개최될 국제종자산업박람회의 선진 모델로, 김제시·국립종자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30여명이 방문하여 박람회의 규모, 운영상황, 전시포 상태 등을 벤치마킹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는 2016년 전북도 종합평가에서 지방하천 정비분야 최우수기관 및 도로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하천제방과 하천 내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제거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정비 및 유지관리 실패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하천유지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항목으로는 2016년도에 춘계·추계 추진한 하천제방 정비 분야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와 기관역량 및 우수소통 지장 수목제거, 제방 및 호안 파손부분 보수, 하천공사물 보수 및 수문정비 표지판 정비상태, 각종 쓰레기 및 적치물, 퇴적물제거, 제방 잡초제거, 둑미루 사리부설 등 홍수피해 예방차원의 정비를 중점으로 종합하여 하천제방 정비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관계 공무원 표창과 영예를 함께 얻었다.

이와 관련 정읍시 건설과 하천관리팀은 내년도 제방정비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2016년 전북도 종합평가에서 지방하천 정비분야 최우수기관 및 도로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로분야에서는 포장도 정비, 배수 시설 정비, 구조물정비, 도로표지 안전시설 정비, 보도 정비 등 도로정비사업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정읍시는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특히 체계적인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포트홀 등을 수시로 정

비하고 도로와 각종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파악해 신속한 보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차질 없는 하천 및 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 '행복나눔 봉사대상' 수상

전국 최초 대학 신입생 반값등록금 실현 등 공로로

부안군 나눔이농장학재단 활성화로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김종규 부안군수가 수상했다.

행복나눔 봉사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 지역발전의 발판 마련을 위한 3년 연속 국가예산 4000여 원 시대 개막, 부안군 나눔이농장학재단 후원회원 활성화를 통해 전국 최초로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 실현, 지역 대표 축제인 부안마실축제의 성공 반열 진입 등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민선 6기 '김종규 표 부안 군정'은



김종규 부안군수

지역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은 물론 오복 오감정책, 소통·공감·동행행정,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 3원칙, 오답 노트 해답노트 등 행정에 인문학을 입힌 감성행정으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모범적 군정운영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6만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성원 속에 오늘의 부안이, 오늘의 성과가, 오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라며 "다가오는 2017년은 '군민행복'이 피부에 와 닿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부안 군정이 제시한 새로운 미래 10년의 비전을 하나씩 구체화해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부랑면-창원 가포동 자매결연 협약식

김제시 부랑면은 19일 경상남도 창원시 가포동과 상호 교류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가포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부랑면장, 가포동장, 양측 주민자치위원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부랑면과 가포동은 행정, 지역경제,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생과 협력으로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정업 부랑면장은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자로서 양 기관의 상호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부랑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특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상호 공동발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쌀 '천년의 숨씨' 우수성 입증

서울 명성교회 판매행사... 5240포대 전량 판매

국내 첫 지리적표시증명포장 제1호로 등록된 부안 쌀이 서울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 18일 부안군은 서울 명성교회(담임목사 김삼환)에서 부안 쌀 '천년의 숨씨' 판매행사를 개최해 5240포대(20kg 1000포대, 10kg 4240포대) 전량을 판매해 1억 1500여만 원어치가 판매됐다.

매년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부안군이 부안 쌀 홍보마케팅을 추진한 지난해에 이

어 올해에도 서울 명성교회에서 실시했다.

이날 부안군 공무원과 계화농협 임직원 및 계화면 청년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부안 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행사에서 부안 쌀을 구입해 처음 먹어봤는데 품질이 좋아 택배 주문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 올해에도 현장에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돼 너무 좋다"며 "판매행사를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사회단체와 함께 고3수험생 영화관람

김제 인문고생 400여명 대상... 전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김제시는 2016년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이후 청소년 탈선예방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영화관람을 9일부터 21일까지 김제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극장에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관내 5개 인문고 고등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9번에 걸쳐 진행되는 영화상영은 수능시험이 끝난뒤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는 일들과, 연말연시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동안의 피로감해소와 많은 친구들이 한 영화관에 같이 볼 수 있어 더욱 즐거움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전주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회장 홍종길)에서 영화관람료를 전액지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어르신 구강건강관리 사업 실시

김제시보건소는 어르신 치아건강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부랑 금신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동지역 106개 경로당과 340여개 면단위 경로당까지 노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을 높이기 위한 잇솔질 실습과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치주질환(충치)예방교육, 틀

니관리교육 및 틀니소독을 실시하였고, 충치예방과 시린이 개선을 위한 불소 바니쉬 도포는 잇솔질 시연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플란트나 틀니사용 등 치과질환 관련 1:1 상담으로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구강위생용품(칫솔, 틀니칫솔, 틀니세정제, 틀니폼) 등을 배부하여 더욱 내실있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뽕주
Premium Old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4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 375ml 2ea/13%

TEL : 083-584-9980
www.gangsanwine.com